



포토리아,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아이패드앱 출시 원클릭으로 이미지 검색 · 공유 · 다운로드 가능

포토리아가 새로운 아이패드앱을 런칭한다.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포토리아의 2800만건 이상의 로열티 프리 이미지의 손쉬운 검색, 다운로드, 공유가 가능하며, 트렌디한 디자인을 채용해 흥미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.

자료제공 | 포토리아

그래픽, 광고, 출판업계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용으로 특별 개발된 포토리아 아이패드 앱은 심미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. 사용자는 포토리아의 2800만건 이상의 로열티 프리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. 특히 1)검색 2)선택 3)공유 4)구매 등 핵심적인 기능만을 담아 간단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포토리아 아이패드앱은 신선한 비주얼 경험을 선사한다. 이미지 검색 결과는 전체 화면에 모아

이크방식으로 표시되는 한편, 손가락으로 화면 스크롤을 통해 다음 페이지로 간단히 이동해 전체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.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 모드를 통해 상세 보기도 가능하다. 이미지 정보 탭을 통해 동일 시리즈의 이미지 보기 및 관련 키워드 검색, 동일 아티스트 작품 보기 등 관련 검색도 가능하다.

안드로이드용도 곧 발표

가격, 파일유형(사진, 일러스트레이션, 벡터), 컬렉션유형(일반 컬렉션, 인스턴트 컬렉션) 등 고급 검색도 가능하다.

사용자는 갤러리를 만들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으며,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. 이미지는 아이패드 또는 드롭박스(Dropbox)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올레그 테 체르조프(Oleg Tscheltzoff) 포토리아 CEO는 “좋은 앱이란 사용자가 재미있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”이라며 “포토리아 아이패드앱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을 위해 트렌디한 디자인을 채용하는 동시에 핵심 기능만을 담아 사용자가 간단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”라고 밝혔다.

포토리아의 아이패드앱은 쉽고 빠른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모바일 트렌드에 대한 포토리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. 포토리아는 2013년 말 이미 스마트폰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해 바로 포토리아 웹사이트로 등록,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사진 앱, ‘인스턴트’를 런칭한 바 있다.

한편, 포토리아 아이패드앱은 IOS 7 버전에서 이용 가능하며,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. 안드로이드용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. ↻

